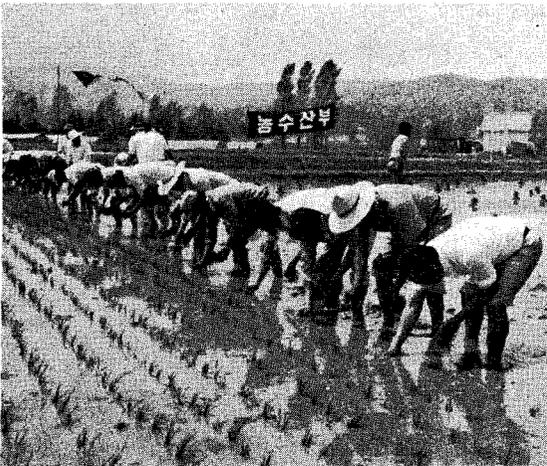




농수산부 직원 모내기지원 작업실시

— 신임 정장관 취임직후 함께 참석 —

농수산부 신임 정종택 장관과 직원 일동은 5월 22일 상오부터 경기도 포천군 수중면 양문리에서 모내기 작업을 하였다. 이날은 정종택 장관의 취임첫날로 충북도백 3년 3개월간의 도정 경험을 통해 농정에도 일가견을 가진鄭장관은 취임식 후 곧바로 모내기 작업에 들어갔다.



△ 모를 심고 있는 정종택 농수산부장관 (우측)과 농수산부 직원들

이날 정장관은 신품종 재배확대를 위한 행정의 강제성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을 도지사 시절에 절감했다고 술회하고 앞으로는 농민의 자의에 의해 품종이 선택되고, 농민 스스로 식량을 증산하겠다는 의욕이 나도록 유도하는 농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보고 행정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 농촌일손 돕기가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천막을 치고 의자를 갖다 놓는등의 모내기 행사 식장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하여서민적이고 지나치리 만치 소탈한 성격의 단면을 보여 농촌 출신으로 농촌을 아는 장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돼지수매값 12~43% 올려

축산진흥회는 5월 9일부터 돼지 수매가격을 규격돈의경우 12.7%, 비규격돈은 43.4% 인상했다. 이에따라 수매가격은 1kg당 규격돈이 종전 7백 10원에서 8백원으로, 비규격돈은 5백 30원에서 7백 60원으로 각각 올랐다.

SWISSKOR 80 스위스 산업기술 박람회 개최

— 스위스의 농기구 사료공장설비 등 전시 —

스위스 무역개발 공사와 주한 스위스대사관이 주최하고 전국 경제인연합회와 한국 방송공사가 후원하는 80년 스위스 산업기술박람회가 5월 31일부터 6월 8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린다. 스위스의 각종 기계, 기

구, 장비, 화공, 의약품, 소비재, 섬유, 서비스업의 전 산업기술이 모두 출품되는 이 박람회에는 스위스의 각종 농기구, 사료공장설비, 제분기 등이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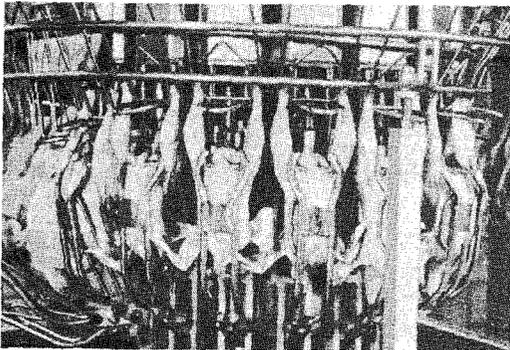


도계장 15곳 새로늘리기로

서울시는 용도가 알맞고 시설이 합당한 경우 도계장 신규업소에 대해 계속 허가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5월 16일 서울시당국은 관내 허가된 도계장은 간이 2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7개소로 절대수가 부족하여 5월들어 성동구 성수동에 간이도계장 1개소를 신규허가하는 한편 15개소에 달할때까지 계속해서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의정부 성남 인천등 서울시 위 성도시에서 반입되는 육계에 대한 위생검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밀도계한 육계가 적발될 경우 모두 압류 폐기처분키로 하였다.



농수산부기구 일부 개편

— 기획관리실 기능 강화 —

농수산부는 농수산행정의 능률화를위해 현행기구의 일부개편을 검토중에 있다.

신임 정종택농수산부장관은 수산청등 산하청의 행정은 청장책임아래 수행,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며 예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의 집행결과등 주요업무는 청장이 직접 보고하도록한다는 방침아래 수산조정관제도를 폐지하는등 현행 본부의 기구와 직제를 조정 개편하도록 지시했다.

정장관은 농수산부의 기구 및 현황을 보고 받은 뒤 농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불필요보고의 지양, 주요한 정책 사업계획수립등을 제외하고는 차드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면서 수산조정관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아울러 지시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농수산부는 기획관리실의 기능을 대폭강화, 수산조정관을 없애는대신 각국의 사업계획추진 및 운영상황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컨트롤 할수있는 새로운 국을 기획관리실장 밑에 두도록하는 방안을 연구검토중에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부, 농지확장과 단위생산성 제고

— 농정일대 개혁 단행 필요 —

정종택 농수산부장관은 석유의 무기화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이 식량자원을 무기화 하려는 조짐이 일고 있어 앞으로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 예상되는만큼 농경지 확대 농업의 단위 생산성 제고등을 위한 일대농정의 개혁이 요청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식량의 소비절약과 함께 남아도는 보리소비 촉진을 위해 혼식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종택 신임 농수산부장관은 농정에 대한 소신을 이같이 밝히면서 이미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은 그대로 추

진하며, 별다른 상황변동이 없는한 인사이동은 하지않을 방침이라고 말하고 공무원의 기강확립 서정채신을 강조, 특히 농번기동안에는 골프장 및 요정 출입을 엄단하도록 지시했다.

정장관은 또 농업통계의 허구성과 부정확성에 대해서도 언급, 앞으로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농업통계는 바로잡겠으며 행정통계의 조작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생산 목표달성을 위한 신품종재배의 강제성을 지양, 농가 자유선택에 맡기는 농정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 35차 한국축산학회춘계학술발표회 개최

— 전북대에서 전국 200여명 회원 참가 —

지난 5월 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북대학교 합동강의실에서 한국 축산학회 2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북대 축산학과와 협조로 제 35차 한국축산학회 춘계 학술발표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9시 50분부터 12시까지 분과별로 나누어 영양·사료 분야에서는 일본축산학회의 연구근황(곽종형), 사료자원개발이용(권항기), Net Protein Feeding System에 대한 소개(윤덕진), 한국 축산의 성격(강면희), 유럽에 있어서 Ruminology 연구동향(이학철), 육종·번식분야에서는 덴마크의 돼지개량 현황(박창식),

초지·가공 분야에서는 목초 재배시 적정 비율을 갖는 바른 시비에 관하여(정연규), 독일의 초지 농업(윤익석)에 대한 특별 강연이 있었다.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전북대학교 축산학과에서 제공하는 점심 식사를 마친 후 1시부터 5시까지 역시 분과별로 나누어 학술발표회가 개최되었는데 영양·사료 분야에서 20 연제, 번식·육종분야에서 12연제, 초지·가공분야에서 11연제 등 광범위하게 연제에 대한 발표 및 토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농산물유통 국제심포지움개최

전국농업기술자협회(회장 류달영) 부설 한국농산물유통연구소가 주최한 농산물 유통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이 지난 5월 1일 오후 1시부터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포지움은 대만의 陳新友(중화민국 행정원 농업발전위원회) 일본의 森安(일본국전수대학교수) 김병태(전국대교수) 김성훈(중앙대교수) 씨의 주제발표로 각국의 농산물유통현상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오후 6시까지 열띤 가운데에 진행되었다.

돼지고기 수매 중단

— 시세회복에 따라 5월 28일부터 —

농수산부는 최근 돼지값이 크게 회복세를 나타내 한마리에 7만3천원선에 거래됨에 따라 생돈수매를 중단하도록 5월 28일 축산진흥회에 지시했다.

농수산부당국은 산지의 돼지값이 이같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은 사육규모가 줄어들어 양돈업자들이 가격상승기미를 나타내자 더 오를것으로 전망, 출하두수를 줄이고 있기 때문인것으로 분석하고 생돈값이 생산비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돼지수매는 일단 중단하기로 했다.

광주지역 전경대에 위문품전달

정중택농수산부장관은 28일 광주지역 전경대원에 돼지고기 1백마리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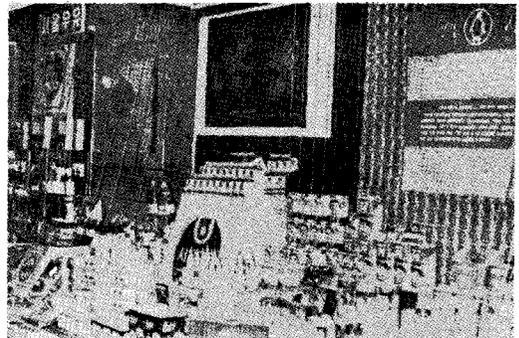
유제품매기되살아나

4월중시유 2만3천여t팔려

— 작년대비 10%·전월비 12% 증가 —

장기간 소비둔화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심한 경영난에 빠졌던 유가공업계는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유제품매기가 점차 되살아나기 시작, 판촉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농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중 원유 생산량은 3만6천9백 87t(집유기준)이며 이중 시유가공판매량은 2만3천2백99t에 달해 전년동기시유 판매량 2만1천89t보다 10%가 늘어났고 특히 지난 3월 2만8백 5t에 비해서도 약 12%의 판매신장율을 나타냈는데 업계는 요즘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우유소비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여 5·6월에는 적어도 작년보다 20%의 매출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의 경우 시유생산 증가율이 10%에 그친데 비해 집유량은 3만6천9백87t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13%의 증가율을 나타내 5천t을 상회하는 전지분유·탈지분유등 재고를 계속 안고있어 업계는 자금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돈콜레라예방백신에 부작용

—가토화·크리스탈 바이레트 백신
사용방지 돼야—
서울대 전윤성교수 새 제품생산 주장

양돈업의 치명적인 전염병 돈 콜레라 예방백신이 각종 부작용을 일으켜 새로운 백신 생산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무역회관 대강당에서 있는 대한수의학회(회장 鄭昌國박사)가 주최한 춘계 심포지움에서 서울농대 전윤성교수가 강연한 「돈콜레라의 문제점」이란 주제강연에서 밝혀졌다.

이 자리에서 전교수는 돈콜레라 주요 전염원이 보균돈에 의한 접촉감염임을 강조하고 어미돼지가 백신을 접종 받았다고 하더라도 새끼돼지는 출산후 4~5주령까지 면역상태가 불량하므로 돈콜레라 백신예방 접종은 어미돼지 수정 3주전에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백신접종후 계속 돈콜레라가 발생하는 이유를 전교수는 ① 어미돼지로부터 물려받은 항체는 백신활동이 저지돼 분만 1주일내에 접종케 되면 백신효과가 없어지고 ② 예방접종전에 감염돼 잠복기간을 지닌 어미 돼지의 경우는 예방접종 실시 4일전에 감염됐을 경우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 백신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영양불량이나 빈혈등으로도 백신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전교수는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토화(家兎化)백신과 크리스탈 바이레트 백신등은 질병을 유발시키는 바이러스가 분리 되므로 이들 백신으로 돈콜레라를 예방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새

로운 백신 생산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축위생연구소 朱漢守박사는 「돈콜레라 박멸대책」이란 강연을 통해 선진국의 경우 돈콜레라는 수년전에 이미 박멸됐다고 밝히고, 관계당국은 돈콜레라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박멸계획 수립 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을 통해 기술적으로 박멸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새마을신문)

축산진흥사업자금 54억지원

—한우교잡등 11개부문에 배정—

축산진흥회는 올해 축산진흥 사업용 자계획 총 2백 15억원중 제 2차분으로 강화도 한우교잡사업을 비롯한 11개부문에 걸쳐 54억 8천 4백만원을 융자키로하고 각도 별로 배정했다.

융자조건은 상환기간 5년 년리 18.5%인데 시장·군수가 사업집행을 주관하며 융자금은 시군농협을 통해 방출된다.

도별 부문별배정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100만원)

△ 경기 613	△ 전남 679
△ 강원 629	△ 경북 762
△ 충북 560	△ 경남 648
△ 충남 605	△ 제주 177
△ 전북 601	△ 농협중앙회 212



'80년도 축산진흥기금 지원내역 (농수산부제공)

사업명	목적	사업량	지원금액	용자조건	비고
○암송아지 입식	암송아지의 농가 입식지원 으로 증식기반구축. 암송아지 가격지지로 농가 소득 증대.	30,000두 일반: 20,000두 종합개발: 10,000두	총지원액: 6,000,000천원 두당: 200천원	3년거치 2년균분 상환, 금리 연18.5%	○입식규모: 1-5두 이내 ○입식대상우: 한우, 육우의 암송아지
○강화지구 한우, 사로 레교잡종 보급사업	강화도 지역의 한우, 사로레 잡종생산에 의한 우육 증산 으로 농가소득 증대.	'80 수정계획: 1,000두 '80 신규지원계획: 800두 '79기존지원두수: 600두	총지원액: 240,000천원 암송아지: 두당300천원 수송아지: 두당300천원	암송아지: 3년거 2년 상환 수송아지: 2년 일시 상환 금리: 연18.5%	
○육우 종모 우지원	육우 도입입식에 따라 국립 종축장산 우량종모우 지원 으로 육우번식능력 향상에 기여.	50두(육우: 애버딘앵 가스, 헤어포드)	총지원액: 25,000천원 두당: 500천원	3년거치 2년 균 분 상환, 금리: 연18.5%	○입식지역 및 대상자: 육 단지 및 기존육우사업양추가 ○입식규모: 암소50두당 종모우 1두
○영농후계 자육성 사	농촌개발을 선도할 지도자 육성	농고농대졸업자: 30명 대관명축산고교: 5명 제주도내농업계교: 5 명. 농촌 청, 장년 대 상자: 10명	총지원액: 200,000천원 1인당 4,000천 원. 용자한도: 소요액의 70% 내외	2년거치 3년균 분상환 금리: 연18.5%	○한우: 번식사업, 큰소비육사 업, 육성비육사업. ○육우: 번식사업 ○유우: 번식 및 착육사업
○대관령 육 우시범 농 가조성	한우, 육우시범목장 조성에 따라 대관령 지역내에 육우 시범농가를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20두(육우: 애버딘앵 가스 및 헤어포드 암 송아지)	총액: 6,000천 원 두당: 300천원	3년거치 2년 균 분 상환 금리: 연18.5%	○입식지역 및 대상자선정: 대 관령 육우시범농가조성 지 역내에서 평균순수가 선정
○전업양축 가육성	쇠고기 수급안정을 위한 한 우, 육우의 번식기지 확대. 번식목장의 기업화 촉진으 로 축산업의 근대화.	60개소 (한우, 육우사업: 50 개소 제주유우사업: 10개소	총지원액: 300,000천원 개소당: 6,000천원 (소요액의 80 % 용자)	3년거치 2년균 분 상환 금리: 연18.5%	○지원대상: 번식목장 신규 조성 대상자로서 초지 또는 초지조성 가능 초지를 확보 한 자.

광견병예방접종 한달간연장

서울시는 광견병예방접종 기간을 오는 6월 20일까지 한달간 연장 실시키로 했다.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달간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을 설정, 5만두를 목표로 접종을 실시해온 서울시는 지난 17일

현재 2만7천5백두만 실시함으로써 부진한 실적을 보여 한달간 더 연장한 것이다.

한편 시는 예방접종과 병행, 이 기간 동안에 각 구청별로 단속반을 편성, 예방주사를 맞지 않는 개는 모두 포박하여 억류 또는 도살처분하고 축주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유통산업 근대화 촉진

— 민간주도 유통산업 육성 —

정부는 유통산업 근대화를 위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기간중 총 8천 5백6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올해부터 오는 84년까지 추진될 유통산업근대화를 위해 계획기간중 정부부문에서 2천억원, 민간부문에서 차관 및 자기자금 6천 5백68억 6백만원등 모두 8천 5백69억원을 투자, 수송·보관·하역 및 가공등의 물적유통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5개년계획기간동안 민간 주도적인 유통산업을 육성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민간사업자본의 유치를 적극 권장할 계획으로 있는데 연도별 유통산업근대화를 위한 투자규모를 보면 우선 올해에 1천22억 8천만원을 내년에는 1천 7백36억 7천 3백만원, 82년 1천 8백62억 3천 7백만원, 83년 1천 9백9억 4천 1백만원, 84년에는 2천37억원까지 연차별로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돼 있다.



△ 정부는 유통산업 근대화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IBRD 차관 5천만 달러 도입

— 농산물복합 가공사업등 지원 —

농어촌개발공사는 제 2차 IBRD 차관 사업 실수요자를 이달안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IBRD 차관사업은 5천만달러규모로서 올 하반기부터 83년까지 4년동안 농산물복합가공, 냉동냉장 유통개선부문에 대해 지원하게 되는데 농개공은 실수요자 모집공고를 내고 월 말까지 선정작업을 끝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개공은 오는 6월초의 IBRD 측과 차관 도입 협정조인을 끝내는대로 실수요자에게 차관자금을 전대하기로 했으며 전대조건은 경제기획원등 관계당국과 협의중에 있는데 연리 13.5% 3년거치 15년 분할상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 소비 증가추세

— 비싼 쇠고기 소비감소 —

비싼 쇠고기 소비가 줄어들고 대신 돼지고기 소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 농협산하 1천 1백68개 육류 판매점을 통해 나가는 쇠고기 판매량은 하루 2백마리정도, 이는 당초 계획했던 것의 절반밖에 안되며 쇠고기 수입을 억제하기 전의 하루 6백마리에 비하면 3분의 1 선이다. 이 같이 소비가 크게 줄고 있는데 대해 농협측은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고기를 덜 먹는데다 쇠고기값과 돼지고기 값의 격차가 크게 나 소비자층이 돼지고기 쪽으로 옮겨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유 성수기에도 재고량 누증

— 4월말 재고량 5천 4백t —

최근 본격적인 성수기를 맞고도 재고량 누증으로 유가공업계가 크게 고전하고 있다.

79년여름 대장균파동으로 급격한 소비둔화 현상을 초래한 이래 전지분유, 탈지분유의 재고 누증으로 자금이 회전되지 않아 심한 경영압박을 받은 유가공 업체는 성수기를 맞아 매기 회복을 기대하였으나 지난 3.4월의 경우 한달 시유판매량이 2만t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그쳐 작년 같은기간의 7.7%증가율에 그쳤는데 생산량은 16.4%가 증산되어 남아도는 원유를 울며겨자 먹기로 전지 분유 또는 가당연유로 만들어 저장하고 있어 4월말 현재 재고량이 5천 4백t에 이르고 있다.

우유는 매년 30% 수준의 소비증가율에 비하여 7.7%의 증가는 크게 처진 것으로 경기 침체와 매주 계속된 비오는 일요일에도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최근 유가공업계는 출혈을 무릅쓴 판촉경쟁을 벌리면서도 우유마시기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하는등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급식에 우유공급의무화

— 서울시, 우유소비촉진책마련 —

서울시는 우유 체화에 따른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 강력히 실천키로 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우유소비촉진 방안을 보면 국민학교 아동급식에 우유를 반드시 먹도록 시교육위원회를 통해 지시하는 한편 시청산하 기관에서 회의때 음료수대신에 우유

를 마시도록 돼 있다.

농수산부의 요청에 따라 소비촉진방안을 마련한 서울시는 보다 위생적인 우유공급을 위해 위생검사소에서 위생감찰을 강화토록 하는 한편 자체위생처리시설 및 유통과정에서 변질될 우려가 있을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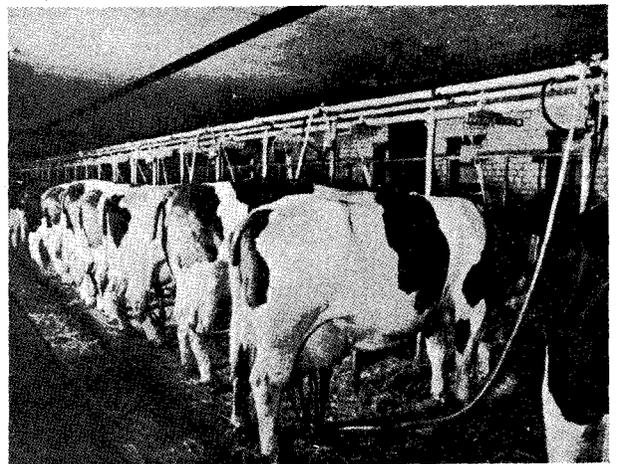
젖소능력개량사업실시

— 촉진, 6월20일까지 —

축산진흥회는 젖소개량사업지구에 대한 사양관리·질병예방등 기술지원사업을 5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다.

축진은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젖소 능력검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정대상 목장에 축산진흥기술 지원단을 파견 현지 기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축진은 젖소개량사업지역내 경영상문제점이 많거나 사업참여도가 낮은 목장을 우선 선정하여 5월 28일~30일 천안지역, 6월 3일~5일 평택지역을 대상으로 젖소의 능력개량 및 경영개선 지도를 실시한다.



우유수매자금 37억원지원

축산진흥회는 금년도 우유수매자금 37억원을 유가공업체에 직접 융자 지원키로 했다.

축산진흥회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유제품의 판매부진과 재고량증대에 따른 유가공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생산농가에 대한 원유대금 지불을 원활케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농협을 통해 융자하던 축산기금 융자와는 달리 우유수매자금을 축산진흥회에서 직접 대출하게 되는데 융자대상자는 낙농가로부터 원유를 수매 유제품을 생산·비축하고 있는 유가공업체로서 금리는 연 18.5%이다.

돼지고기소비자값 인상조정

— 16일부터 6백g 1천 100원 —
생돈값 전국오름세

산지의 생돈값이 오름에 따라 돼지고기 값이 근당 1천원에서 1천 1백원으로 올랐다.

16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한때 내림세를 보여오던 생돈값이 14일현재 마리당(90kg) 전국평균 6만 1천 9백원에 거래되었으며 지육의 경락가격도 kg당 1천 2백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연동제에 따른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을 서울시 당국은 16일부터 종전 근당 1천원에서 1천 1백원으로 조정 인상 했다는 것이다.

한때 5만 3천원 수준으로 까지 폭락했던 돼지 값이 이같이 오름세를 보인것은 사육두수가 크게 줄어든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농수산부조사에 따르면 작년 9월, 3백 27만 마리에 달하던 것이 작년 말에는 2백 80만 마리로, 지난 3월말에는

2백 30만 마리로 사육 규모가 크게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5월 23일 현재 지육 경락가격은 1천 3백 80원까지 상승하였다.

농산물수입의존도높아져

— 작년 15억달러, 전체수입의 7.4% —

국내 가격지지 정책기반의 약화로 인해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해마다 증가 79년 수입액이 약 15억달러에 달해 총수입액의 7.4%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제 5차 5개년 계획작성을 위한 농업부문의 주요정책과제로 제시한 자료에 나타난 79년도 농산물 수입실적은 △ 쌀 50만 2천t △ 밀 1백 65만 2천t, △ 옥수수 2백 88만 1천t △ 대두 42만 2천t △ 쇠고기 3만 1천 7백t △ 돼지고기 7백t △ 채소 3만 6천t으로 수입의존도가 쌀은 총소비량의 9%, 옥수수 95% 대두 56% 쇠고기 28%를 각각 차지했다.

농산물 수입규모가 근년에 이르러 이같이 늘어난 것은 70년대 중반까지 교역조건이 농산물에 유리했던 것이 후반기부터 불리해졌고, 농업의 노동생산이 제조부문보다 훨씬 뒤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당국은 분석 했다.

농수산작황 심의회 구성

정부는 농수산통계의부실·부정확 때문에 빚어지는 농수산물의 수급파동을 막고 농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계·연구기관·언론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농수산작황 통계 심의위원회를 5월 20일 발족, 운영키로 했다.

농촌진흥청장에 윤근환씨

정부는 31일 농촌진흥청장과 윤근환 농업기술연구소장을 승진 발령하였고 김인환 농촌진흥청장은 이 날짜로 의원면직됐다.



〈윤 근 환〉

◇ 윤청장 약력

- ▲ 경기도 수원 출신 (51세)
- ▲ 서울대 농대졸
- ▲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소장
- ▲ 농림부 농업경영연구소장
- ▲ 대통령 비서실 근무
- ▲ 농수산부 농산차관보·식산차관보
-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연구소장

불황의 늪에 빠진 사료업계

— 4월의 판매실적

26만 8천t에 그쳐 —

축산업이 불황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함에 따라 사료업계도 금년들어 계속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일 농수산부가 집계한 지난 4월 한달동안의 배합사료 판매실적은 26만 8천 t으로 이는 작년 같은기간 33만 4천 t보다 20%가

줄어든 것이며 3월 보다는 겨우 3%가 증가한 것이다.

이와같이 생산량이 감소하는것은 오일쇼크 이후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축산물 소비 둔화가 장기화되어 가축수가 감소하였기때문인데 그간 외상대금의 회수가 늦어져 자금난 까지 겪고있어 군소공장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는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서 하반기에도 배합사료 수요가 증가하기는 어려워 조업단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천호부회장 양돈기술강습회개최

천호부회장에서는 양돈사업개시를 기념하여 지난 5월 1일 양돈협회의 후원과 미국 유수의 농장 자동화시스템 생산업체인 A.R. WOOD사의 협조를 얻어 당사 3층 회의실에서 양돈 기술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 양돈업계중진 다수를 포함한 28개 단체에서 참석한 이날 강습회의 화제는 전자동 사육시설이 설치된 무창돈사에 의한 일관 생산체계 이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 양돈업계가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천호부회장 양돈 기술강습회 광경

한국가축 개량사 발간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회장 황영구)는 4×6 배판 600페이지에 달하는 “한국가축 개량사”를 지난 4월 30일 발행하였다.

우리나라 가축 개량의 어제와 오늘을 종합 정리한 이 책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 1 장..... 가축개량 단체의 창설
 - 제 2 장..... 축산업의 생리와 종축개량
 - 제 3 장..... 가축개량사 (양계부문은 오봉국 박사집필)
 - 제 4 장..... 가축개량과 축산행정
 - 제 5 장..... 종축 생산사
 - 제 6 장..... 가축 개량의 시험연구사 (양계부문은 정선부 박사집필)
 - 제 7 장..... 축산진흥과 가축개량 증식사업
 - 제 8 장..... 가축개량과 인공수정사업
 - 제 9 장..... 가축의 개량 방향 (양계부문 박영일교수 집필)
 - 제 10 장..... 한국축산의 역사
 - 제 11 장..... 종축개량협회 제규정
- 그외 각종 통계표 및 도표 수록



△ 우수 종축의 개량은 축산발전의 기본이다

닭고기값 다시떨어져

— 최근 국내정세와 비수기영향으로 —

최근 경기침체, 학원사태등과 비수기로 인해 닭고기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가격도 지역에 따라 kg당 520원까지 하락하여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고 있다.

16일 농수산부 당국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서울의 하루 닭고기 거래량은 5만 5천 마리 정도로 이는 성수기의 하루소비량 15만 마리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한 것이며 평일의 소비량 10만수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축산진흥회로 하여금 계속 구매 비축을 하고 있다.

부산시 밀도계 일제단속

— 밀도계품 취급업소 허가취소키로 —

부산시는 5월 26일 부터 밀도계 판매행위 일제 단속에 나섰다.

부산시는 하루 1만여마리의 닭고기가 판매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시장에서 도축하여 소비자에게 직거래 유통되고있는 밀도계 형태로 유통되고있어 부산시 당국은 각구청 경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시장통을 중심으로 밀도계 상습지를 순회 단속하여 밀도계 행위자와 판매자는 고발 조치하고 부정육은 일제 수거하여 폐기처분키로 하였다.

한편 부정 닭고기를 취급하는 요식 업소가 적발되면 1차에 1개월간의 영업정지 2차에는 허가취소키로 하는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여 밀도계를 일제 근절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80년도 대한수의학회 춘계 심포지움 성료

— 양돈질병을 중심으로 5월 9일 무역회관에서 —

지난 5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역회관(회현동소재) 9층 대강당에서는 수의학회 회원과 양돈업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0년도 대한수의학회 춘계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대한양돈협회의 협찬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움은 제 1주제 돼지콜레라의 문제점 부분에서 전운성(서울대 수의대교수)박사의 발표가 있었으며 제 2주제 돼지대장균성하리 부분은 김봉환(가축위생연구소 연구관) 박사가 발표하였고 제 3주제 돼지의 만성세균성 호흡기 질병부문에서 강병규(전남대교수) 박사와 박정문(가축위생연구소) 연구관이 각각 주제를 발표하였다.



△ '80년도 대한 수의학회 춘계 심포지움은 300여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쇠고기값강보합, 돼지고기는 오름세

— 서울시내 수입고기값은 변동안돼 —

지난 2주동안 서울시내 쇠고기값은 강보합세를 보이고있는 반면 돼지고기값은 계속 오름세를보여 13~15일 3일동안 2백 47원이 올라 돼지고기 경락가격은 kg당 1천 2백47원에 거래되고 있다.

5월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쇠고기값이 지난 2주동안 강보합세를 보이는 원인은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수요가 약간씩 줄어들기 때문이며 돼지고기는 출하량이 떨어지고있어 3일째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수입쇠고기는 kg당 2천 4백원으로 5월 들어 계속 보합세를 이루고, 수입돼지고기는 kg당 1천 1백 96원으로 96원이 오른값에 유지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가격연동제 실시이후 지속적인 안정공급을 위해 정육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키로하고 가격표를 붙이지 않거나 올려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시장키로했다.

농업신용차관 6천만달러도입

— IBRD에 사업계획서 제출 —

정부는 IBRD 농업신용차관 6천만달러 도입을 추진, 이미 사업계획서를 세계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3년부터 79년까지 2차에 걸쳐 3천50만달러를 도입, 농어민소득증대 사업등에 지원한바 있는 IBRD 농업신용차관은 그동안의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IBRD 측이 이번에는 6천만달러를 공여하겠다는 뜻을 한국정부에 밝힘으로 경제기획원과 농수산부간의 협의를 거쳐, 차관사업계획서를 최근 IBRD에 제출했으며 6월중 IBRD측 평가단이 내한,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을 조사한뒤 오는 9월중에 최종 협의할 예정이다.

3차 IBRD 농업신용차관사업은 차관자금 3백48억원(6천만달러) 정부재정 56억원, 농협자금(금융) 93억원등 총 4백97억원을 81년부터 84년까지 4년간에 걸쳐 농민들에게 지원, 시설원예·과수원조성·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등 생산유통·이용가공부문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년리 8%~8.5%(차관협정 체결시의 세계은행이자율적용)에 3년5개월거치 13년5개월 균분상환조건으로서 대농민용자금리는 15%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3차농업신용차관사업은 1, 2차때단위사업별로 지원하던 것을 부문별로 지원, 대농민용자에 융통성을 부여 탄력있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인데 △성장농산물 생산(시설원예등) 부문에 2백96억원 △유통이용가공(저온저장고등) 부문에 2백8억원을 각각 책정하고 나머지 2백6억원은 4년간의 물가상승등을 감안 예비비(2백6억원)로 돌려 신

축성있게 자금을 집행 용자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민은 자기자금 30%를 부담해야 한다.

이차관 사업자금의 년차별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농가부담 30%제외한 금액, 단위: 억원)

재원 \ 년도	81	82	83	84	계
차 관 자 금	63	94	119	72	348
재 정 자 금	14	17	17	8	56
금 용 자 금	23	28	28	14	93
계	100	139	164	94	497

농민과 대화넓혀 시책반영

— 정장관, 농진청 초도순시 —

신임 청종택농수산부장관은 쌀의 자급을 위해서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심을수 있는 내병성신품종을 개발하고 신품종에 새로 나타나는 병충해를 완전히 방제할수있는 양질의 농약을 개발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이날 농촌진흥청과 농업진흥공사를 초도순시한 자리에서 이와같이 말하고 앞으로 농어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위해 국장급 이상의 간부들을 각 도별로 분담, 농어민들과 대화한 결과를 보고케하는 전문보고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또 농어촌의 일손부족을 매우기 위해 노동청과 협의 도시유화노동력을 농촌에 취업시키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불필요한 행정계통의 보고는 일체 받지않고 꼭 필요한 통계보고는 보고회수를 대폭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이밖에도 금년부터는 새마을청소년회원등을 농촌지도지부로 특채하고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완공위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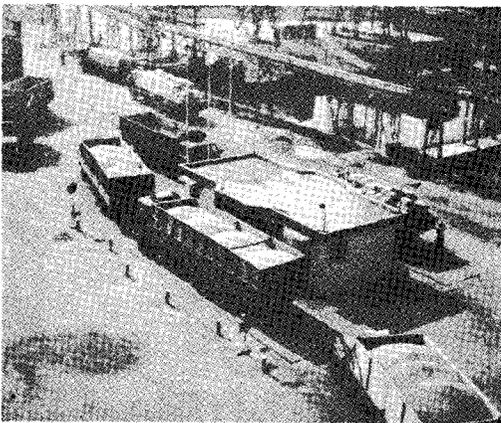
국제곡물값 계속내림세

— 대두 t당 280 · 옥수수 152 달러 —
미, 대소수출규제에다 작황좋아

올들어 사료곡물의 국제시세가 계속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t당 3백 38달러(C&F)까지 치솟았던 대두값이 작년 12월에는 3백 5달러로 떨어졌고 최근에는 2백 80달러 수준으로까지 내렸으며 옥수수도 작년 7월 t당 1백 69달러(C&F)에서 12월에는 1백 52달러로 최근에는 1백 5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두·옥수수등 국제곡물시세가 이같이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 원인은 미국이 소련에 대한 수출규제조치와 올해 곡물작황이 평년 작수준이상은 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주지구생필품수급대책마련

— 축산물가격지지키로

농수산부 지도반 현지파견—

농수산부는 광주지구에 대한 생필품 수급

원활과 가격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하루에 쌀 3천75가마·보리쌀 9백가마·혼합곡 1만1천7백 60포대를 방출하고 현지에서 매일 수급현황을 점검, 필요할 경우에는 정부양곡을 무제한 방출하기로 했다.

29일 농수산부는 유행열 농정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광주지구 생필품공급지도반을 편성 현지에 파견하고 양곡이며 채소류, 축산물,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급의 원활과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영농자재와 자금을 집중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농수산부가 조치한 광주지구 생필품 공급 계획 및 특별대책은 다음과 같다.

△ 채소류 = 반출부진으로 인한 가격폭락을 막기 위해 농협으로 하여금 즉각 타지역에 계통 출하하도록 하는 한편 광주지역에 대한 채소류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한다.

△ 축산물 = 생돈출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광주소재 삼호축산에서 수매하던 돼지를 농양산업(서울소재)과 동보통상(전남별교)에서도 수매하도록 하여 가격을 지지.

△ 수산물 = 수협이 비축하고 있는 대구 2만 2천 톤(1 톤=17kg)·가자미 2만 2천 6백 톤·황우렁기 1만 3천 2백 톤 등 냉동품을 무제한 방출.

아시아 수의사회 연맹정기총회

제 2 차 아시아 수의사회연맹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가 일본 동경에서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

아시아 수의사회 가맹국은 한국을 비롯, 일본·중공·대만·인도네시아·싱가폴·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등 9개국으로 이번 총회 집행의장은 대한수의사회장인 윤패병씨(한국 야쿠르트 유업사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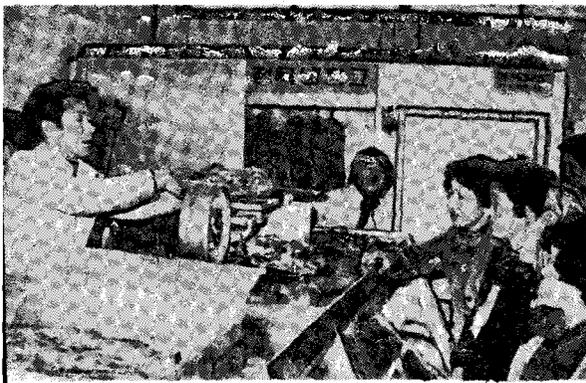
정육점신규 허가완화검토

서울시는 농수산부의 요청에 따라 일반정육점 신규허가를 대폭 완화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당국에 따르면 우선 재개발지역에 우선적으로 허가하는 한편 강북의 경우에는 지역실정에 알맞은 장소에는 주민들의 편의를위해 신규허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3천 2백 12개 정육점 가운데 1천 9개 직매점을 제외한 2천 2백 3개소의 일반정육점만으로도 주민들에 전혀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지난 78년 6월 이후 강북의 신규허가를 규제해 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일 농수산부로부터 돼지 고기소비촉진을 위해 강북지역에도 정육점신규허가를 완화해줄것을 요청받고 지역별 정육점실태 조사에 착수했는데 상주인구에 비해 업소수가 적은 지역 및 지역여건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는 신규허가를 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시는 앞으로 일반정육점 신규허가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소련, 곡물생산목표미달될듯

— 생육나빠 1억 9천만톤예상 —

소련은 금년봄 날씨가 평년보다 추웠을뿐 아니라 비가 너무 많기와 생육이 부진했고 게다가 파종이 늦어져 곡물생산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올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농무성발표에 따르면 소련의 올해 곡물생산계획량은 2억 3천 5백만톤으로 기상조건이 나빠 1억 9천만톤 내지 2억 3천만톤밖에 수확하지 못할것으로 예상했다.

또 미농무성은 소련의 올해 곡물생산이 평년작에 이른다 하더라도 80/81년도 소련의 곡물 수입량은 2천 2백만톤 2천 4백만톤이 될것이며 만일 흉작이 될 경우에는 3천 4백만톤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계산물과 결합되는 동물성식품 시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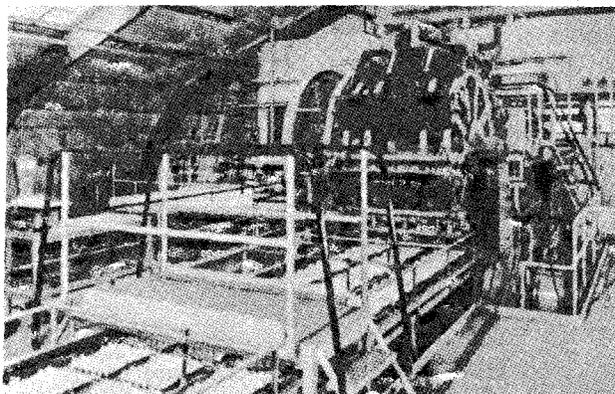
(5. 30 현재)

쇠고기 (지육 kg당)	3,560원
돼지고기 (")	1,371
도미 (1 kg)	3,200 (5,800~1,800)
병 어 "	500
부 어 "	1,500 (2,000~800)
계	730 (1,700~600)
고등어	270 (380~200)
꽂 치	340
도루묵	220 (360~160)
명태 (생)	260 (380~200)
냉 태	220
오징어	950 (1,100~780)
조 기	1,500 (1,900~590)

한국 - 덴마크 산업심포지움 개최

— 5월19일 ~ 23일 서울롯데호텔서 —

덴마크 여왕부군과 덴마크 공업연맹 대표 자들로 구성된 덴마크의 한국산업시찰단이 내한, 한-덴마크 경제협력위원회가 주최한 한국-덴마크 산업 심포지움이 5월19일부터 23일까지 롯데호텔에서 덴마크의 모든 산업기술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다. 이 심포지움에는 덴마크의 하트만 브라더스 주식 회사의 종이난좌가 소개되어 특히 양계인의 주목을 끌었다.



농민의 신뢰받는 농협으로

—정장관, 농협중앙회 초도순시에서 밝혀—

정종택 농수산부장관은 5월 31일 농협중앙회를 초도순시하고 농협은 진정한 농민의 소리를 듣고 농민이 원하는 것을 찾아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육성하라고 지시했다

정장관은 경지확대·단위생산량제고·년중생산체제확립이 농정의 최대과제라고 밝히고 농협은 이같은 농정구현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장관은 증산이 제1생산이라면 소비절약은 제2생산이므로 부급한 투자를 억제하는 등 농민이 구두퇴작전을 피야할 것이며 영농자재는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것을 적기에 확보, 공급하여 농민의 신뢰를 얻고 협동생산과 공동출하제를 확충, 농산물 제값받기

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특히 전농협업무를 전산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또 단위조합육성을 위해 제도·인사를 대폭보완하여 단협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지방단위교육기관을 활용, 정신무장과 기술보급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득용 농협중앙회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농협운영기본목표인 농업생산력증진·농민의 지위향상·복지농촌건설을위해 단협의 조기자립및 내실화등 5개주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봉사위주의 농협사업을 더욱 개선해 조합원의 욕구와 의견을 집약, 반영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80년 미곡(米穀) 무역 1 천만톤 예상

1980년 세계 미곡무역은 1979년의 1천1백 10만톤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FAO 미곡 생산국그룹의 4월말 FAO에 보고했다.

이 기구 참가국들의 수입예측에 근거를 둔 1980년도 전체소요량은 1천30만톤과 1천1백40만톤 사이로 예측되고 있다.

일부수입국은 저축분에 약간 의존하기 때문에 이 미곡 그룹은 실제로 1천1백만톤을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잡고 있다. 수출국은 수입을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있어 1980년엔 수출여력과 수입수요 사이에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980년초엔 미곡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지난 2월 이후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가축사육장에 특수방역 실시

—자체방역 소홀에 기인—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집단생활권 방역대상인 73개 가축사육장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통해 별도의 특수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서울시의 방침은 가축사육장에서의 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있는 자체방역사업이 대부분 소홀한데다 방역에 철저를 기한다해도 퇴비의 악취·축사의 정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각종 전염병발생이 우려돼 이를 예방키 위한 것인데 가축검역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의, 방역사업 실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72개 공동가축장 및 대형가축장의 대부분은 도봉구상계동 등 변두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인근주민들이 악취 등에 시달려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이전토록 조치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진정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주택밀집지역의 사육장은 점차적으로 이전조치하고 주택인근사육장에 대해서는 특수방역을 매일 실시키로 했다.

업체 단신

○ **녹십자수의약품(주)** : 용인공장을 대폭 증축하고 새로운 전무이사에 전문경영인인 이승호(고대경제과졸) 씨가 취임 하였다.

또 신제품(콤바인백신) 개발을 위하여 한길무사장이 4월 호주에 다녀왔고 현재 유병문차장(미생물부)이 약 4개월 예정으로 현지에서 수련중에 있다.

○ **고창양계(대표인홍중) 봉명부화장(대표 차상진)** : 공동으로 세이버산란계 사양관리 지침서를 발간하여 고객에 서비스하고 있다.

○ **서해농산(주)(대표: 김훈동)** : 그간 중지했던 크로마통신 제12호를 5월 5일부터 다시 부활 발간하였다. 내용은 업체정보, 사양관리 축산기초상식 등으로 꾸며진다.

○ **FAO 한국협회** : FAO 한국협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식량 농업에 관한 자료를 수록한 세계('78) 식량농업 백서를 지난 5월 1일 발간 4×6배판 118P

○ **박종만, 김경하(감별사, 한미학원)** : 남미 페루의 부화장 감별사 취업차 지난 5월 23일 출국.

○ **김종수** (양북개발물산대표) : 선진 광업
업계 시찰을 위해 대한 광업협동 조합주관
으로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광업 박람
회와 캐나다, 일본 등의 광산 및 광산기계
메이커 견학을 위해 5월 4일 출국.



(김 종 수)

○ **김용현** (감별사, 한일농원) : 서독 Hil-
ke 회사 취업차 5월 19일 출국.

○ **대한제당(주)** : 남대현 부장과 김영수 사
리 공장장은 5월 28일 약 1개월 예정으로 무포
장 사료 운반에 관한 업무 협의차 일본으로
출국.

○ **영남제분(주)** (대표 : 유용술) : 주소변경
대구사무소 :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3가 17번
지 (동산주유소뒤) ☎ (44) 3784

마산사무소 : 마산시 합성동 24부록 5노트 2
☎ (5) 6106

○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장 : 최죽송) : 사
무실 이전으로 전화번호 변경.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21-2
(한동빌딩 203호) ☎ 70-6273

○ **동호가축약품** (대표 : 이동춘) : 전화번
호변경 ☎ (478) 08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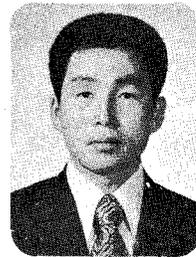
○ **풍년산업(주)** (대표 : 김봉춘) : 사세
확장으로 전화증설 ☎ (989) 0893

○ **서해농산(주)** (대표 : 김훈동) : 원주
국번의 신설으로 5월 1일부로 전화번호
변경 ☎ (대표) (2) 0121~5 (야간 2-0121)
(관리부) 2-0126 정성준 전무택 (2) 0128

○ **(주) 한국실업** (대표 : 조금환) : 오리
엔탈착유기 메이커인 동사는 정부의 지원
육성으로 사세가 확장됨에 따라 서울 중구
양동 44-6 동양빌딩 207호에 영업부를 설
치하였다. 전화 (778) 6623~4
서울 영업부에는 김형철고문(전농촌진흥청)
과 오태석전무(전농수산부)가 상근한다.

업계 인사

○ **동호가축약품** (대표 : 이동춘) 사세 확장
으로 수의사 최석원(산업대 수의과졸) 씨를
기용.



(최 석 원)

○ **서해농산(주)** (대표 : 김훈동) : 관리
부에 리진만(강원대졸), 생산부에 김재민
(서울대졸)씨 영업부에 박봉준(강원대졸),
원용식(원주대졸)씨를 각각 기용.

○ **대한사료(주)** (대표 : 이덕우) : 경기도
광주사업소에 이덕춘 소장을 발령.